飜譯텍스트 選定과 飜譯態度의 問題

— 朴龍喆論 —

金 洸 中

I

飜譯은 주어진 文學 내에서 주어진 文學의 受容 또는 影響의 硏究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飜譯을 통해 飜譯國側의 讀者가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은 물론 그들에게 有用한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自國文學의 편협성이 克服될 수 있는 것이다.

飜譯文學은 肯定的인 側面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잘못 선택된 작품들의 飜譯은 飜譯國의 讀者나 文學에 해독을 끼칠 수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飜譯은 반면에 原作者의 文學史的 位置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飜譯만이 과거의 작품을 좀더 온전하게 하는 偉力을 가지고 있음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다.

이와 함께 飜譯家의 임무 또한 막중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飜譯家는 자기 나라 文學에 介在할 수 있는 空白을 확실히 파악해 내고 이것을 메꾸기 위한 자료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飜譯家는 다른 文學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文學을 윤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발달과 더불어 飜譯이 증가해 가는 한, 飜譯과 飜譯家에 대한 硏究 또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本稿는 朴龍喆의 飜譯態度와 飜譯對象 作品選定 問題를 具體的으로 검토한다.

II

飜譯對象 作品의 選定은 全的으로 個人的인 것이어서 飜譯者의 嗜好 내지 趣向에 歸結된다. 특히 重要한 것은 飜譯者는 飜譯對象 作品이 끼칠 文學史的 意義는 물론 社會的 趣向, 讀者의 嗜好 등을 考慮에 넣어야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朴龍喆이 獨逸의 많은 詩人 가운데 특히 하이네詩를 압도적으로 많이 譯出해 낸 根本的인 이유는 우선 그가 純粹抒情詩에 執念이 强했던 데 起因한다.

朴龍喆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海外文學派, 詩文學派의 構成員의 一員으로서 이들의 機關誌는 아니었으나 이들 다수가 참가하여 發行한 《詩文學》, 《文學》 등을 통해 抒情詩運動을 벌여 나갔다. 이것은 당시와 같이 時代思潮가 격렬한 文學運動時代에 그 時代思潮와는 아무 關係도 없는 듯한 것[1]이기도 했으면서 이 시대의 한 主流를 이룬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積極的으로 우리 文壇에 受容된 하이네詩의 初期의 特色은 한 마디로 浪漫과 抒情性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그의 初期詩는 주로 1827年에 發刊된 《노래집》에 收錄되었다. 그리하여 쓰라린 사랑의 苦痛을 안고 있으면서 아름답고 순결한 詩의 世界를 追求하였던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하이네는 浪漫主義 詩人들이 즐겨 썼던 民謠形式의 抒情詩 形態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克服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도와 좌절을 되풀이하면서도 4行詩를 끝내 버리지 않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浪漫的인 것, 傳統的인 것에 關心이 컸던 朴龍喆에게는 깊은 關心의 對象이 될 수 있었다.

朴龍喆이 이처럼 抒情詩에 깊은 關心을 가졌던 사실은 그의 詩論인 〈詩的變容에 대해서〉에서 뿐만 아니라, 金永郎이 初期의 아름다운 抒情小曲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자네 옛적같은 四行이나 八行이 아니 나오나 그런 美詩形을 完成한 사람이 朝鮮안에서 자네 내 놓고 누구있나."[2]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한 것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하이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젊은 작가들은 7月革命을 치루고 난 후 理性은 물론 지쳐있는 人間을 포용해 주는 自然的인 田園의 必要性을 認識하게 되면서 浪漫的인 自然을 憧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內面世界를 整理하고 外界를 洞察하려는 意圖가 커짐에 따라 작가의 세계는 自然에 根據를 두면서 제2의 自然인 幻想의 世界를 통해 現實을 추구하려는 傾向을 띠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 獨逸 作家들은 새로운 田園的 自然을 그들의 문학에서 추구했고, 특히 그들의 정신적 安息處를 과거의 浪漫主義에 根據를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浪漫的 抒情性의 시를 쓴 하이네의 시를 즐겨 다루게 된 朴龍喆의

1) 白 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3, pp.395~402.
2) 詩文學社, 《朴龍喆全集》 Ⅱ, 1940, p.34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경우, 外的으로 보면 鄭芝鎔, 金永郎 등이 모더니티를 추구할 때 그 홀로 時代를 逆行하는 듯했으나, 그 個人的 趣向이 傳統的인 것, 浪漫的인 것에 關心이 깊었던 데서 낭만주의를 옹호하게 된 것이며, 아래의 引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뚜렷이 把握할 수 있다.

> 그것을 한번 벗어던지게 되면 감초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 파리한 얼굴은 더욱 파리해지고, 달아져 번적이는 洋服이 선득 눈에 뜨이고 눈우에 오래 버려진 新聞紙 쪽을 가까이 들여다 본 때 같이 洋服 前面에 散在했던 汚點들은 一瞬에 그 歷歷한 過去를 나타내인다.
>
> 이 빛나는 새 세상에 대한 제 自身의 부끄러운 痕跡들을 옹색히 싸고있던 한벌의 낡은 外套를 벗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참말 裸身이나 되어버린 듯이 부끄러움의 重壓으로 果枝같이 구부러지고 만다. 나는 이 낡은 外套로 다시 몸을 싸기를 기뻐한다.
>
> 랄보—의 어느 詩에 여름밤 풀의 薰香의 爽然한 가운데 로만티시즘의 낡은 저고리가 外套를 입고 漫然히 걸어가는 것을 노래한데가 있다. 나도 暫時 그를 본 받을가 한다.
>
> × ×
>
> 봄을 어찌 참아 기다리랴
>
> 봄을 어찌 참아 저주하랴
>
> 나는 浪漫主義보다도 더 낡은 한벌의 外套를 두르고 草原長堤에 풀속에 꽃도 드문드문한 언덕길을 길이 길이 걷고 싶어한다.[3]

그의 400여篇에 達하는 飜譯詩篇의 거의 全部가 抒情詩였음도 注目할 만하다.[4]

다음, 이 時代의 重要한 作家로 꼽힌 作家가 하이네였다. 1934年 1月 21日字 朝鮮日報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硏究對象으로서 생각나는 過去作家와 作品의 重要한 것만을 問題삼는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가튼 것이다. 『단테』『세익스피어』『햇싱그』『쉴러—』『빠이롱』『괴—테』『하이네』『뮤슈킨』……, 하이네는 괴—테 다음으로 獨逸에 有名한 多情多

3) Ibid., p. 143.

4) 그가 이렇게 많은 量의 詩를 飜譯한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詩에 沒頭했는지 分明히 드러나는 바 金永郎의 다음의 말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 나는 莫逆 龍喆을 생각할 때 그 天生 蒲柳의 質임을 이기고 어쩌면 그렇게도 굳세게 詩에의 信念을 가질 수 있었는지 부러워하며 眞實한 詩의 使徒이니라 여겨왔다(金永郎, 〈朴龍喆과 나〉, 《自由文學》, 1958年 6月號, p. 3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限의 大詩人 이외다. 只今 譯載하는 것은 그이의 戀愛詩中 하나가 됩니다. (傍點은 筆者)

그것은 開化期 以後 獨逸文學의 移入 樣相을 살펴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하이네는 괴에테와 함께 가장 많은 작품이 飜譯, 紹介된 詩人인 점만 보아도 이 時代에 하이네에 대한 關心度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時代的 要求에 맞추어 하이네詩를 集中的으로 飜譯해 보려는 노력을 보여 준 朴龍喆의 意圖는 自然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그가 하이네詩에 傾倒한 것은 朴龍喆 個人의 傳記的 事實과도 無關하지 않다. 하이네가 初期의 自己 戀情을 〈마돈나의 시대〉라고 指稱하고 있듯이, 하이네는 純潔한 사랑을 戀慕했으며, 아말리아와의 사랑에 失敗함으로써 그가 받은 충격은 컸는데, 이러한 충격이 하이네가 시를 창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詩的 世界의 아름다움을 묘사함으로써 실하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 했고, 이에 마음의 보상도 받고 失戀의 위안도 찾으려 했던 것이다.[5]

朴龍喆의 경우 16세 때 于婦를 보아야 하는 집안의 形便 때문에 愛情이 없는 狀態에서 金孝貞女人과 結婚함으로써 여기서 느끼는 幻滅로 인한 心理的 不安感을 누이를 통해 均衡을 취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누이의 親友인 林貞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6] 이 무렵부터 그의 진정한 靑春은 싹이 트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그의 意慾的인 삶이 展開되기 시작하며, 그것은 林貞姬에게 쓰는 文學指導의 形態로 나타났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發展하여 "試官노릇"[7]을 한다고 하면서 讀書指導, 文學書의 選擇 등에도 깊이 關與하게 되고 文學論 쪽으로 次元을 넓혀가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詩創作에도 愛着을 가져 林貞姬에게 보내는 便紙 속에 自作詩를 끼워 넣기도 하여 이 때 나온 작품이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이며, 그의 이러한 文學에의 執念과 사랑의 完成이라 할 林貞姬와의 結婚은 "얼어붙은 바다에 쇄빙선같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밝음과 내일에의 지향"을 約束하는 것이었다.

---

5) 吳漢鎭, 《하이네硏究》, 文學과 知性社, 1979. p.21.

6) 朴龍喆은 前婦人과 離婚한 이듬해 1929年 9月 15日 林貞姬에게 보낸 편지에 "……사랑하는 누이의 사랑하는 벗에 대한 허물없음으로 말하지 않아 짐작하기를 바래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같은 해 10月 17日字 편지에는 〈정희氏〉 대신 〈貞姬에게〉로, 11月 17日에는 〈貞姬보오〉로 發展한다 (全集Ⅱ, pp.218~269).

7) 全集Ⅱ, p.27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처럼 그의 熱中이 達成되었을 때 朴龍喆은 文學을 通해서 그 熱中이 自己 主體를 가눌 수 있음으로 하여 계속 文學에 集中하게 된 것은 自然스러운 일이 된다.[8]

결국 自己의 心理的 상처와 不安을 文學을 통해 解消시켰다고 하는 傳記的 事實의 共通性은 朴龍喆이 하이네 作品에 愛着을 갖게 한 충분한 動機가 된다.

朴龍喆이 특히 獨逸 浪漫主義의 마지막 시인인 하이네의 작품을 선택한 根本的인 理由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래의 《詩文學》 편집후기에 나타나는 그의 文學精神이 "민족 言語의 完成의 길"에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詩를 살로 새기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 우리의 詩는 우리 살과 피의 맺힘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詩는 지나가는 걸음에 슬적 읽어 치워지기를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詩는 열번 스무번 되씹어 읽고 외여지기를 바랄 뿐 가슴에 느낌이 있을 때 절로 읊어나 보고 읊으면 느낌이 이러나야만 한다. 한말로 우리의 詩는 외여지기를 求한다. 이것이 오직 하나 우리의 傲慢한 宣言이다.
>
> 사람은 生活이 다르면 감정이 같지 않고 敎養이 같지 않으면 感受의 限界에 따라 다르다. 우리의 詩를 알고 느껴 줄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주저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조선말로 쓰인 詩가 조선 사람 전부를 讀者로 삼지 못한다고 어리석게 불평을 말하려 하지도 않는다.
>
> 이것이 우리의 自限界를 아는 謙遜이다. 한 민족의 言語가 발달의 어느 정도에 이르면 國語로의 존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文學의 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文學의 成立은 그 민족의 言語를 完成시키는 길이다.……앞으로 詩論, 時調 外國詩人의 紹介等에도 있는 힘을 다하려 한다.

위의 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의 文學活動은 民族語의 完成에 있고 外國詩의 飜譯과 硏究에 힘을 써 보려는 努力도 이에 歸結되며 이것을 통해 우리 文學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民族言語의 完成이라는 원대한 뜻은 곧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는 浪漫主義의 根本精神과 깊이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獨逸 浪漫主義의 特性을 分明히 파악할 수 있는 아래의 글을 보면,

> 浪漫主義는 다시 한 번 올 것이다. 왜냐하면 浪漫主義는 다만 時間的인 것, 一回的인 것, 요란하게 흘러가 버린 흐름이 아니라 永遠한 要素, 永遠한 바다이다. 그 속에 人間精神은 되풀이하여 몸을 담가야 한다. 聖스런 回春의 목욕을 해

8) 金允植, 〈龍兒·朴龍喆硏究〉, 《學術院論文集》 9집, 1970, pp. 203~20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出生하고 모든 形象이 誕生하는 永遠한 어머니의 품이다. 마치 音樂에서 造形美가 나오고, 希臘神話에 있어서 義의 女神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理由는 硬化되어 死滅하지 않고 生存하기 爲해서는 再三 破壞·解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變形이 生을 守護하는 秘訣이 된다. 浪漫主義는 變形의 要素이다. 이 要素가 모든 硬化한 形式을 包攝하여 再生을 促求한다.[9]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모토가 意慾的으로 發揮된 것은 《詩文學》[10]에서다.

Ⅲ

朴龍喆이 飜譯對象으로 삼은 하이네詩는 대체로 初期詩에서부터 後期詩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으면서도 初期 抒情詩에 集中된 傾向이 있는 것이 特色이다. 具體的으로 열거하면 《歸鄕》에서 24篇, 《新春》에서 26篇, 《抒情插曲》에서 29篇, 《노래》에서 6篇, 《세라핀詩篇》에서 2篇, 《안젤리크》에서 1篇, 《他國에서》 1篇, 기타 詩篇 2篇 총 91篇을 飜譯하고 있다.

그런데 이 時期에 우리 나라의 海外詩 受容은 우리 詩의 進步, 發展에 도움이 되는 角度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 批判的인 態度가 必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918~1930년대에 이르는 期間에 이루어진 海外詩 受容은 이런 原則이 거의 意識되지 않은 것으로 評價되어[11]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金容稷이 指摘한 것을 보면[12] 그의 해외시 공부가 現代的인 것에 대한 것보다 그 이전의 近代的인 것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批判하고 나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그는 海外詩를 부담없이 읽기에는 그의 外國語 實力이 아무래도 未及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그가 現代의 海外詩 作品 自體를 놓고 그것을 銳角的으로 파헤쳐 그 言語, 리듬, 이미지 등을 배워 낼 수는 없었던 게 아닌가 여기면서 그에 따라 그가 海外詩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을 技述的인 面보다 좀 막연한 詩의 精神面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9) 池明烈, 《獨逸浪漫主義研究》, 一志社, 1975, p.3에서 再引用.
10) 〈《詩文學》 創刊에 대하여〉(《朝鮮日報》, 1930. 3. 2)에서 보면 〈朝鮮말로 쓴 글〉을 싣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11) 金容稷, 《韓國近代文學의 史的 理解》, 三英社, 1977, p.84.
12)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p.23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리고 그가 接한 外國의 詩論 역시 키엘케고르, 릴케, 발레리 등의 것으로 대부분이 詩에 있어서 poésie의 面을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批判은 아래의 몇 가지 狀況에서 觀點을 달리하여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金容稷은 우선 하이네의 飜譯詩에 대해서는 10篇이 飜譯되었다는 점[13]을 들어 간단히 紹介했을 뿐이다. 이것은 물론 그가 朴龍喆이 더 많이 飜譯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한 말은 아니다.[14]

그는 하이네가 朴龍喆에게 끼칠 수 있었던 영향관계에 대하여는 看過함으로 인하여 하이네가 poésie의 面과 文體面에서 同時에 朴龍喆의 創作詩에 끼친 影響問題를 度外視했다.[15]

다음, 그의 外國語 實力의 不足으로 現代詩를 銳角的으로 파헤쳐 읽을 수 없었다는 점은 그가 東京 外國語學校 獨文科에서 한 學期 정도밖에 修學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당시의 一般 水準에 비추어 보면 妥當한 面도 없지 않으나 그가 수학적 두뇌가 明晳하였고[16] 歸國해서도 獨逸語 工夫에 總力을 기울여 "英語와 獨逸語를 通하야 外國의 文學을 直接 맛보았다."[17]는 사실과 하이네가 추구한 文體의 解放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18]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의 海外詩 工夫가 現代的인 것보다 그 以前의 近代的인 것에 치우쳐 있는 理由를 外國語 實力의 不足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朴龍喆 個人의 關心이나 趣向이라는 側面에서 살펴 보아야 마땅하다.

朴龍喆이 하이네詩를 전반적으로 고루 飜譯하려는 努力을 보였지만 주로

---

13) Ibid., p. 231.

14) 왜냐하면 이 論考는 旣存硏究 가운데 詩文學派에 대한 集中的인 硏究의 하나일 뿐 아니라 基礎資料로 朴龍喆全集 Ⅰ, Ⅱ卷을 確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이 問題에 대하여는 다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言及될 것이다.

16) 그의 數學的 才能은 이미 培材中學 時節에 나타나 "그는 보기 드문 天才였다. 故로 當時 數學을 敎授하시던 金成鎬先生의 그 後의 말슴이 數學敎授 時間中 朴君의 質問이 가장 두려웠다고 하신다. 비록, 身體로서는 적은 便이었지만 銳敏한 그의 觀察力과 明晳한 判斷力으로 或 先生님에게 確實하신 것이나 不充分하신 點(金先生님께서는 數學의 大家라 別로 그런 點이 없으셨지만)을 質問함에는 朴君의 偉大한 天才에 두려워하셨던 것이다"(全集Ⅱ, 著者略歷, p. 3).

17) Ibid., p. 8.

18) 하이네는 철저히 정형성을 유지한 민요조의 시와, 더불어 律調에 상관없이 散文같은 시를 썼으며, 그것은 현대풍의 쉬운 글을 보급하자는 뜻에서 에세이풍의 글이 유행하던 당대의 한 흐름이기도 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初期 抒情詩 쪽에 치우쳐 있는 것도 그러한 角度에서 說明될 수 있으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一生을 貫流하는 文學精神인 民族語의 完成과 民族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關心에서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이네의 政治 및 社會的 關心을 나타낸 詩篇들은 대체로 除外되어 있어 그 個人으로나 文壇的으로 題材 혹은 主題面을 폭넓게 확대하지 못했다.

Ⅳ

朴龍喆의 飜譯詩篇을 全集 1卷에 收錄된 것을 目次에 나타난 詩題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괴테詩 13篇, 쉴러詩 1篇, 하이네詩 91篇,[19] 릴케詩 7篇, 英國詩 64篇, 美國詩 20篇, 사라·티쓰데일詩篇 22篇, 拾遺 25篇, 색동저고리 78篇으로 총 331篇이 되는 셈이다.

飜譯詩 가운데 獨逸詩人의 詩는 體系的으로 飜譯하고 있으나 기타 英, 美, 佛, 中, 日, 愛蘭 등의 諸詩人들의 作品은 特別한 基準이 없이 飜譯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抒情詩에 集中되고 있음도 注目할 만하다.

特記할 것은 〈색동저고리〉篇이 어린이들의 教育用으로 譯出된 의도가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譯詩 첫 머리에 朴龍喆의 創作詩를 싣고 있는 것을 보아도 짐작이 된다. 아래에 이 시를 인용한다.

아침 까치 지저귄다.
색동저고리 끄내입자

색동저고리ㅅ바람으로
아장아장

무지개 다리를 넘어 가자
엄마의 품을 나서 먼 나라를 구경가자.

19) 이것은 번역시편에 수록된 66편과 拾遺에 실린 1篇(原典에 없을 뿐 아니라 다른 飜譯詩篇은 詩題를 姿意로 달고 있으나, 이 詩만은 例外로 題目을 달지 않고 있음)까지 合하면 67篇이 된다. 그리고 《新春》이라는 題下에 Prologue, 1~40으로 되어 있는 原詩 가운데 26篇을 飜譯한 것을 個別的으로 計算하면 하이네詩 91篇을 飜譯한 셈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의 전기적 사실, 문단활동을 考慮에 넣고 이 詩의 내용을 살펴 볼 때, 그에게서 先驅者 내지 指導者 意識이 저절로 드러난 셈이다.

朴龍喆의 飜譯詩가 과연 原詩에 입각한 直譯인지 혹은 日譯의 重譯인지를 立證할 만한 根據資料는 전혀 없다.

朴龍喆은 본래 海外文學派의 一員으로서 이 流派가 주장한 바와 같이 海外詩를 직접 原詩에 맞추어 直譯하자는 態度를 固守해 나간 쪽이었다.[20] 그러나 그 당시 狀況으로 보아 반드시 日譯에 의한 重譯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最小限 參考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면[21] 1920년대를 前後해서 日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飜譯者인 生田春月의 《ハイネ詩集》[22]을 참고로 하였을 것이다. 그의 飜譯詩를 原詩와 對照하여 例示하면 아래와 같다.[23]

《歸鄕》 24篇 : 〈한 번은 내게 빛나든 그림이〉①, 〈로레라이〉②, 〈내 울고 돌아다니면〉④, 〈아름다운 고기잡이 아가씨〉⑧, 〈인어의 노래〉⑨, 〈바다는 멀리 번쩍인다〉⑭, 〈그 집에 들어와보니〉⑲, 〈캄캄한 꿈속에 서서〉㉓, 〈해는 오고 가는데〉㉕, 〈꿈에 사랑의 길을〉㉖(㉙), 〈네 하얀 나리꽃 손가락을〉㉛, 〈저의 둘은〉㉝(㊱), 〈괴로움을 하소한 때는〉㉞(㊲), 〈너는 한송이 꽃〉㊼, 〈자리에 누으면〉㊾, 〈나의 기도〉㊷, 〈밤에는 눈이 싸힌다하자〉㊶(㊹), 〈한마디 말슴에다〉㊻, 〈첫사랑하는 이는〉㊸, 〈내 안해 되는 날에는〉㊽, 〈산우에 해는 올라와〉㊽(㊾), 〈서투른 길에〉㊽, 〈죽엄은 본시 치운 밤이라〉㊼, 〈고운 그 사람 어대 있느냐〉㊽

《新春》 26篇 : 〈序詩〉, 8, 11을 省略한 1~25까지의 詩, 40을 加算하여 총 26篇

---

20) 해외문학파의 취지는 《海外文學》(외국문학연구회, 1927. 1) 창간호 권두언에 잘 드러남.

21) 그의 飜譯詩를 보면 原詩에는 없으나 日譯에 있는 作品을 飜譯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젊은 가슴이 찢어질 때에〉는 日譯本(生田春月譯, 《ハイネ詩集》, 東京, 新潮社, 1933, p.2)의 〈若心悲み〉 가운데 '小唄' 17의 것을 飜譯하고 出處를 〈노래 17〉로 적고 있는데, 《하이네전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2) 出版社, 出版年代는 註 21)에서 이미 밝혔다.
李有浩는 그의 〈하이네小考〉에서 하이네를 論한 글 가운데 "〈로—레라이〉의 作者 하이네, 四寸 누이동생들에게 쓴 닷본 작사랑을 노래 부른 星童詩人 하이네, 冊店에 분홍美裝을 하고 누어있는 生田春月 등이 소개한 하이네, 이것이 이 小考의 課題다."(《朝鮮日報》, 1937年 1月 25日字)라고 한 것을 보아 生田春月의 飜譯詩集은 당시 우리 文壇에 이미 紹介되어 있었던 듯이 보인다.

23) 詩題目 다음에 붙인 번호는 原詩의 작품번호인데 原詩의 작품번호와 다른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리고 詩題目은 原詩에는 없는 것인데, 朴龍喆이 恣意로 詩의 첫 행을 그대로 하거나, 內容을 要約하여 적고 있다. 괄호 안의 번호는 全集에 收錄된 번호로서 原詩와 일일이 對照하여 誤記임이 判明된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 飜譯됨.

《抒情揷曲》 29篇 : 〈序詩〉는 省略되어 있다. 〈활작 아름다운 오월달에〉①, 〈내 눈물에서는〉②, 〈네 눈을 보고 있으면〉④, 〈네 얼굴 곱고 사랑스러워〉⑤, 〈뺨을 빰에 대어라〉⑥, 〈노래의 날개 위에 너를 실고〉⑨, 〈련꽃은 두려워서〉⑩, 〈나를 사랑치 않는다〉⑫, 〈세상은 눈멀었지〉⑮(⑯) 〈너는 아조 잊었너〉㉑(㉒), 〈원망도 않는다〉⑱(⑲), 〈각근한 인사를 하였겠다〉㉕(㉖), 〈조그만 눈이 파란 시르미꽃〉 ㉚(㉜), 〈아름다운 세상〉㉛(㉝), 〈솔나무는 외로이 서서〉㉝(㉟), 〈곱고 밝은 금빛 별아〉(原詩에는 없는 것인데 ㊱으로 적혀 있음), 〈사랑을 보낸 다음에는〉㊲ (㊳), 〈크나 큰 괴로움에서〉㊱(㊴), 〈꽃이라는 꽃들은〉(原詩에는 없는데 ㊻으로 되어 있음),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㊹(㊶), 〈빛나는 여름날 아칠에〉㊺(㊷), 〈더운 여름에 앉었다〉㊽(㊿), 〈사랑하는 두 사람이〉㊾(㊺), 〈내노래는 독이 들었다〉 ㊶(㊼), 〈옛날의 꿈을 다시 보노라〉㊷(㊽), 〈꿈 속에 나는 울었답네〉㊺(㊻), 〈꿈에 너가 뵈이어〉㊻(㊷), 〈치운 한 밤중에〉㊶(㊹), 〈나의 있는 곳마다〉㊸(㊽).

《노래詩篇》 6篇 : 〈일어나며 묻는 말〉①(⑤), 〈마음 아조 쓰러질 듯〉⑧(⑭), 〈젖은 가슴이 찢어질 때에〉(原詩에는 없으며, 본래 1~9까지일 뿐인데 '노래 17'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랑과 미움, 미움과 사랑〉(原詩에는 없는데 ㉗로 되어 있음), 〈푸른 숲으로 다니고 싶다〉(原詩에는 없으나 '노래 20'이라고 밝힘), 〈산우에 올라서니〉(原詩에는 없으며, ㊾로 되어 있음).

《°세라°핀 詩篇》 2篇 : 〈숲 가운대로〉(Seraphine 1)(全集에는 °세라°핀으로만 되어 있음), 〈나를 사랑하는 줄이야〉(Seraphine 4 (全集에는 역시 번호 없음).

《안겔리크》 1篇 : 〈아름다운 너의 키스에〉(Angelique 5).

《他國에서》 1篇 : 〈남의 나라에서〉(他國에서 Ⅲ)(全集에는 번호 없이 '他國에서'라고만 되어 있음).

其他 詩篇 2篇 : 〈너를 사랑함으로〉 (原詩에 없음), 〈나는 바다에 잠기어 지어다〉(原詩에 없음).

以上의 飜譯詩 內容을 보면 하이네詩 全篇에 걸쳐 譯出하고 있음이 分明하며 그 가운데서도 《노래집》 Buch der Lieder에 수록된 시를 가장 많이 뽑아 飜譯했음도 分明해진다.

이 《노래집》[24]과 《新詩集》 Neue Gedichte[25]은 보통 읽히는 것으로 生田

24) 이 詩集은 1827년에 發刊된 것으로 13版이나 重版되었으며 여기에 실린 작품은 아래와 같다.
① 1817年~1821年에 쓰여진 것인 《젊은 이의 슬픔》 Junge Leiden에 10개의 〈꿈의 影像들〉 Traumbilder, 9개의 〈노래〉 Lieder, 民謠調〈說話詩〉 Romanzero. 20여개, Sonett 13여 개가 수록되어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春月의 飜譯詩集의 序文에 보면, 이 두 詩集을 주로 飜譯한다고 하면서 最後詩集《說話詩》Romanzzero의 작품도 보태어 합계 290여편을 譯出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네의 모든 分野에 대한 才能을 표시하기 위하여 充分히 注意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이네의 愛好家들을 滿足시키면 幸福하겠다고 덧붙이고 있다. 參考로 序文을 引用해 보면 아래와 같다.

ハイネ詩集中普通廣く讀まれるのは『歌の本』(ブツフ・デル・リイ)と『新詩集』(ノイエ・グデイヒテ)とである. この譯本も右の二卷を主とし, これに後年のはロマンツエロ『最後の詩集』(レツテゲデイヒテ)中の作を加へ, 總計二百九十餘篇, ハイネの才能のあらゆる方面か示すために十分の注意を拂つたつもりである. ハイネ愛好者の滿足を買ふを得は幸ひである.

『歌の本』中最も主要なる『抒情插曲』(リリツシエイス・インテルメツツオ)(もと劇詩『ラトツリッフ』と『アルマンソル』の中間に插まれて出版せられたのでこの名がある)『歸鄕』(タイ・ハイムケカル)の二部門, 『新詩集』卷頭なる『新しい春』(ノイエ・フリユウリング)及び『若い悲み』(ユンケ・カナレン)中の『小唄』(リイテル)は全部を譯出したから, それ等の番號は原詩と全然同一である. そして原詩の番號に

---

② 1822年~1823年에 쓰여진《抒情的 間奏曲》(이것을 朴龍喆은 〈抒情插曲〉이라고 飜譯하고 있음) Lyrisches Intermezzo 안에 1개의 〈序曲〉 Prologue와 65편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다.

③ 1822年~1824年에 쓰여진《歸鄕詩篇》Die Heimkehr에 88개의 無名詩, 5편의 挽詩가 수록되어 있다.

④ 1824年에 나온《하르쯔여행기》Die Harzreise에 1개의 〈序曲〉과 4개의 長詩가 수록되어 있다.

하이네는 1839년 3월에 이 시집 3版을 내면서 그 첫머리에 "이것은 옛날의 童話集이다. Das ist der alte Märchenwald"라고 밝혔다.

25) 이 시집은 1844년에 刊行된 것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① 《新春》 Neuer Frühling에 序曲 Prologue와 44篇의 詩, 《여러 가지 시》 Verschiedene에 〈세라핀〉 Seraphine이라는 題目으로 15篇, 〈안젤리크〉 Angelique 9篇, 〈다이아나〉 Diana 3篇, 〈호르텐제〉 Hortense에 6篇, 〈클라리스〉 Klarisse 5篇, 〈욜란트와 마리〉 Yolante und Marie 4篇, 〈엠마〉 Emma 6篇, 〈탄호이저〉 Der Tanhäuser 3篇, 〈時間詩〉 Zeitgedichte 24篇, 〈創造 노래〉 Schöpfungslieder 7篇, 〈푸리드리케〉 Friedrike 3篇, 〈카타리나〉 Katharina 9篇, 〈他國에서〉 In der Fremde 3篇, 〈悲劇〉 Tragödie 3篇이 수록되어 있다.

② 《說話詩》 Romanzen 23篇이 있고,

③ 《주르 올레아》 Zur Ollea 6篇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新春》만은 例外로서 序詩와 1~25 가운데 8과 11은 省略하고 40을 追加, 飜譯함으로써 26篇을 飜譯하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まる事の出來ないものに限り，番號の打ち方を(その一)といふ風にして置いた.

譯語は全部目語か用ゐた．多少無理なところもあつた代り，或る點ではかなり成功したかと思ふ．譯し方は嚴密な直譯をしたり，また極めて意譯をしたりした，韻律上の用意のためである．尙この譯はレクラム版の全集を底本とし，傍らボンス・スタンダブド・ライブラリイの英譯を參照した.

위의 序文의 내용으로 미루어 두 가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시 日本에서 하이네詩가 상당히 愛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日本 飜譯者들의 飜譯態度를 分明히 알 수 있다. 즉 譯語는 口語로 하였고, 엄밀한 直譯을 하거나 또는 韻律上의 問題 때문에 意譯을 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英譯을 參考로 했다는 사실이다.

朴龍喆의 飜譯態度를 確認할 만한 自序 혹은 其他 言明은 發見되지 않으나 그의 飜譯詩를 통해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原詩에 제목이 없이 一連 번호로 되어 있는 시를 각 편마다 標題를 단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그 시의 첫행을 그대로 따서 혹은 시의 내용을 요약하여 標題를 삼고 있다. 그것은 讀者들에게 시의 내용을 一目瞭然하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던 것같다.

日譯은 原典과 같이 題目없이 番號順으로 譯出하고 있으나 押韻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朴龍喆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原詩에 없는 題目을 任意로 달아 놓고 詩의 끝 부분에 出處를 밝히고 있으며, 原詩에서 철저히 쓰여진 押韻을 우리말 語法에 맞게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26]

V

朴龍喆의 飜譯態度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證據資料는 거의 없다. 본래 飜譯者는 自己가 選擇하는 作家 및 作品에 대하여 解說은 물론 그가 어떤 식으로 飜譯한다는 具體的인 立場을 飜譯詩集의 序頭 혹은 末尾에 밝히는 것이 보통이지만[27] 朴龍喆의 경우는 그런 자료를 전혀 남기고 있지 않으

26) 이것은 1930년대의 特徵이기도 하여 飜譯詩篇은 주로 浪漫과 抒情性의 詩들에 치중하고 하이네의 政治 및 社會的 關心을 나타낸 詩篇들은 하이네에 대한 論考에서만 例示되었을 뿐이다.

27) 루터의 〈Sendbrief von Dolmetscher〉와 슐라이어마허의 〈Über die verschiedene Methoden des Übersetzers〉는 그 代表的인 例가 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며 그의 飜譯詩가 收錄된 全集 1卷도 그의 死後 發刊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한 面貌를 살필 만한 根據가 없다. 그러므로 그가 屬했던 海外文學派의 基本態度를 考察함으로써 그 윤곽을 헤아릴 수 있고 기타 그의 全集 2卷에 收錄된 글 속에서 暗示받을 수 있는 部分을 抽出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開化期 이후 1930年代에 이르기까지의 飜譯態度를 簡略히 살펴 볼 必要가 있다.

開化期 新文學은 形式과 內容의 자양분을 당시의 飜譯文學에서 얻고 있으며 이 때는 西歐物 飜譯에 있어 國權의 守護라는 功利性 追求 一邊倒였고 西歐作品의 原著者의 意圖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 日人의 眼目에서 受容되고 굴절된 範圍에서 受容되었다. 이로부터 文藝作品에로의 길을 터놓은 것이 《少年》이다. 그리하여 《少年》에서는 歐美 作家의 이름, 작품 이름은 물론 實際作品까지 移入해 들였다. 그러나 《少年》이 內包하고 있는 殘餘 功利性이나 日人의 西歐文學 受容態度인 完譯, 逐字譯, 抄譯, 意譯, 譯述, 梗槪譯의 態度가 우리 飜譯文學史에서 完全히 拂式된 것은 1918年에 나온 《泰西文藝新報》에서다.[28]

《泰西文藝新報》에서 注目되는 점은 《少年》에 보이는 功利的인 作品이 排除되고 純粹文學이 飜譯, 紹介되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飜譯의 無意識時代라 해도 過言이 아닌 過去의 內容 偏重의 飜譯態度에서 차츰 外形을 함께 重視하는 意識的 飜譯의 새로운 視野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提起된 問題가 原文에의 充實性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飜譯史에서 매우 뜻깊은 일로서 《泰西文藝新報》 創刊號(1918. 8.26)에 실린 尹致昊 署名의 卷頭言을 보면 드러난다.

> 본보난 져 텨셔의 유명ᄒᆞᆫ 소셜 시됴 산문 가무 음악 미술 각본 등 일반문예에 관한 기사를 문학대가의 붓으로 직접 본문으로부터 충실ᄒᆞ게 번역하여 발행ᄒᆞᆯ 목젹이온바 다년계획하오든바이오날에 데일호 발간을 보게 되엇습니다(傍點 筆者).

岸曙는 原文에 충실해야 한다는 《泰西文藝新報》의 基本姿勢를 가장 성실히 준수한 사람으로 그의 譯詩集 《懊惱의 舞蹈》를 내놓으면서 "字典과 씨름을 하야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譯詩集 한 卷입니다."[29]라고 함으로써 逐字譯을 一貫시킨 획기적 업적을 이루었다.

---

28) 金秉喆, 《韓國近代飜譯文學史硏究》, 乙酉文化社, 1975, pp. 283~284.
29) 金億, 《懊惱의 舞蹈》, 廣益書館, 1921, 序文 一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와 같은 "充實한 直譯"에 旗幟를 든 것은《金星》의 梁柱東이며 이 雜誌는 日譯의 重譯과 무책임한 飜譯態度를 意識的으로 排擊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飜譯態度는 專攻語에만 局限하였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 英譯의 重譯에 의존했으며, 專攻者의 良心에서 原作名, 譯者의 이름(雅號까지도 배격함)을 明記하였고 '譯者 머리말'을 반드시 붙여 原作者 및 原作의 解說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重譯일 경우 반드시 譯者가 使用한 言語를 明記하였다. 이러한 態度는 飜譯文學을 正常軌道로 끌어 올리려는 중요한 態度로서 1930年代에 이르러 海外文學派에 의하여 이루어진 飜譯의 誠實性이 先驅的인 역할을 했을 뿐더러 우리 나라의 飜譯文學을 本軌道로 올려 놓으려는 첫 시도를 했다.[30]

朴龍喆은 해외문학파의 일원이므로 海外文學派의 飜譯態度를 살피는 일은 朴龍喆의 飜譯態度를 解明하는 前提事項이다.

《海外文學》의 創刊號 卷頭辭에 보면,

> 우리가 外國文學을 研究하는 것은 결코 外國文學研究 그것만이 目的이 아니오 첫째에 우리 文學의 建設, 둘째로 世界文學의 相互範圍를 넓히는 데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한 이들은 "充實한 飜譯, 正確한 紹介, 眞摯한 研究"의 세 가지 슬로우건 밑에 굳게 동침으로써 그 人的 구성이나 精神的 姿勢로 보아 르네상스적 文學現象의 二大要素인 傳統과 自由와를 綜合할 수 있는 原動力[31]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飜譯態度는 특히 梁柱東과의 論爭[32]을 통해서 그 論爭의 焦點이 明白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아래의 세 가지로 要約된다.

① 飜譯者의 態度, 直譯과 意譯의 問題

② 文體에 關한 것, 硬文이냐 軟文이냐의 問題

③ 譯語에 關한 것, 外國文字를 그대로 쓸 것이냐의 問題, 다시 말하면 譯語의 限界性[33]

첫째의 直譯, 意譯의 問題에 있어서 異河潤은 逐字的인 直譯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意譯도 認定해야 함을 주장하고[34] 金晋燮은 世界의 名譯에는

30) 金秉喆, op. cit., pp. 475~476.
31) 金秉喆, op. cit., pp. 495~496.
32) 구체적으로 말하면 "無涯 對 海外文學派, 정확히 말해서 無涯 對 異河潤, 金晋燮의 論爭"이다(金秉喆, op. cit., p. 518).
33) 梁柱東, 〈飜譯問題에 關하야〉, 《新民》 26號, p. 94.
34) 異河潤, 〈《海外文學》 讀者 梁柱東氏에게〉, 《東亞日報》, 1927. 3. 2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意譯도 直譯도 있으니 이런 問題는 譯者의 嗜好의 問題라고 했다.[35]

朴龍喆의 경우는《詩文學》創刊號에 아래와 같은 글을 쓰고 있어 그의 飜譯態度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最小限의 暗示를 받을 수 있다.

> 外國詩의 飜譯에는 반다시 原作者名과 詩題等은 그 外國語로 적으시고 더욱이 本文을 寫送해 주시거나 出處 等은 반드시 밝히 가르쳐 주시면 친절하신 노릇이겠읍니다.[36]

라고 하여 原詩에 立脚하여 充實히 飜譯함을 原則으로 하고 있음을 明白히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態度는 愼重하면서도 서서히 차근차근 發展해 나가자는 立場에서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우리 文學에 寄與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讀者에 대한 關心을 가지고 飜譯에 임하는 態度 등이 아래의 글에서 確認된다.

> 外國詩의 飜譯과 研究에도 힘을 써보려 하나 오직 陣容이 고르지 못하였다. 맞땅한 同志를 더 얻어 우리의 希望을 이루고 讀者에게 이익을 주려한다. …中略…
> 우리는 우리의 거름을 조용조용 더듬더듬 걸어가려 한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서 한 때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나이는 해로 세이려 한다.[37]

바스네트 맥기르 Basnett Mc Guire는 "飜譯者는 우선 譯者여야 하고 다음에 作家이며 읽는 과정에서 그가 취해야 할 태도를 決定해야 한다."[38] 고 한 바 있어 示唆하는 바가 크다.

그의 말을 參考로 한다면, 朴龍喆은 飜譯에 대한 理論的 武裝은 되지 않았어도 最小限 飜譯家의 正確한 任務는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침착하게 作業에 임한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대체로 飜譯家의 任務는 自己 나라 文學의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 說利하게 觀察하여 그것을 메꿀 수 있는 資料를 飜譯을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作品을 選定함에 있어서도 당시의 社會的 趣向, 讀者의 嗜好를 無視해서는 안 된다는 側面에서도 朴龍喆은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例外的인 사람이 아니었다.

---

35) 金晋燮, 〈奇怪한 批評現象—梁柱東氏에게〉,《東亞日報》, 1927. 3.22.
36) 〈寄稿規定〉,《詩文學》創刊號, 1930. 3. 1.
37) 全集Ⅱ, p.144.
38) Sussan Bassnett Mc Guire,《*Translation Studies*》, Methuen, London, 1980, p.7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飜譯家의 直接的인 言明 혹은 自序[39]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實情에 비추어 400여편에 이르는 그의 飜譯을 分析·檢討하여 나타나는 結果는 다른 자리에서 飜譯詩 分析을 통해 明白히 드러날 것이거니와 한마디로 朴龍喆은 直譯을 原則으로 하되 必要한 경우에 적절히 意譯을 한 우수한 飜譯家임에 틀림이 없다.

參 考 文 獻

金秉喆, 韓國近代飜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社, 1975.

金容稷, 韓國近代詩研究, 一志社, 1974.

_____, 韓國近代文學의 史的 理解, 三英社, 1977.

金允植, 龍兒·朴龍喆研究, 學術院論文集 9輯, 1970.

東亞日報, 1927年 3月分

白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3.

生田春月, ハイネ詩集, 新潮社, 1933.

詩文學社, 朴龍喆全集 Ⅰ, 1939.

_____, 朴龍喆全集 Ⅱ, 1940.

吳漢鎭, 하이네研究, 文學과 知性社, 1979.

外國文學研究會, 海外 文學, 1927.

自由文學, 1958. 6月號.

池明烈, 獨逸浪漫主義研究, 一志社, 1975.

Mc Guire, Susan Basnett, *Translation Studies*, Methuen, London, 1980.

Heine, Heinrich, *Sämtliche Werke I*, Winkler Verlag, 1978.

Van Tieghem, Paul, 金東旭譯, 比較文學, 新陽社, 1959.

39) 飜譯家의 序文은 귀중한 資料를 提供하는 것을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다.
"판단으로써 비판적으로 읽으면 그들 서문에서 각 번역자의 사상, 아울러 그가 쓴 또는 썼다고 말하는 번역법, 문제의 작자에 대한 당시의 공중의 태도, 혹은 그 작가에 대하여 번역자의 것도 들어 있으리라는 여러 태도, 수신국에 있어서의 그 馴化의 변천, 즉 순화의 얼마만큼이나 긴 역사에 대하여 많은 것이 알려지는 것이다."
Paul van Tieghem, 金東旭 역, 《比較文學》, 新陽社, 1959, p. 23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